<연세대학교 2014년 사회계열 1번>
네 제시문을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가-라-다-나이다.
개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은 (가)이다. (가)의 논지는 개인의 선택원칙이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의 공평한 관망자는 사회 체제의 규칙을 조정하고, 각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할당한다. 이는 한 개인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의 개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라)이다. (라)의 논지는 각 개인이 시민 간 공동체적 유대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라)의 자유시민들은 시민적 화합으로써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의지를 구현한다. 그 결과 개인의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는 (가)와 달리, 그 몫이 여러 명에게 분산되어 순서 상 (가)의 다음에 온다.
세 번째는 (다)이다. (다)의 논지는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회의 자체적 특성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의 사회는 충동 견제 및 배려 능력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 특성이 개인의 도덕성을 능가하기 때문에 사회는 보다 이기적이게 된다. 한편 사회의 자연적 특성의 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어, 개인들의 영향력을 일부 인정한다는 점에서 순서 상 (나)보다 앞에 온다.
가장 낮은 것은 (나)이다. (나)의 논지는 사회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의 사회는 개인에게 삶의 조건과 도덕의 출발점을 부여한다. 이는 개인의 역할과 관점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 피동적으로 규정됨을 의미한다. 개인이 능동적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의 개인의 영향력은 네 제시문 중 가장 낮다.

<연세대학교 2014년 사회계열 2번>
네 제시문들은 구성원 간의 주장이 상충하는 갈등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그 해법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의 해법은 사회적 차원에 속한다. 교육을 통한 배려심의 함양과 사회세력의 형성을 통하여 집단적 이기심과 자연적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것을 논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강제성을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차원의 해법이다.
한편 개인적 차원의 해법은 외부적 접근과 내부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의 해법은 내부적 접근에 속한다.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논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적 요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한 구성원이 자기 내부에 주어진 요건에 근거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이며 내부적인 해법이다.
이와 달리 (가)와 (라)의 해법은 외부적 접근에 속한다. 그러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에 있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인다.
먼저 (가)는 합리적인 개인이 사회 내의 다양한 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의 수단을 배분해 구성원들의 욕구 만족을 극대화할 것을 논한다. 이는 개인이 외부적 요인인 사회 체제와 규칙을 변화시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이며 외부적인 해법이다.
반면 (라)는 선한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 엄격해져서 부정의한 사람들의 부도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논한다. 이는 협력적 교화를 통해, 외부적 요인인 또 다른 구성원들을 변화시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이며 외부적인 해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가)의 변화대상은 사회인 반면 (라)의 변화대상은 또 다른 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네 제 시문은 갈등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포한다. (다)는 사회적 해법을 내포하는 반면 (가), (나), (라)는 개인적 해법을 내포한다. 한편 (나)의 해법은 내부적이며 이와 달리 (가)와 (나)는 외부적이다. 또한 두 제시문은 외부적 변화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Q1. 글자수가 왜 모자랄까요?

문제 1번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감안하더라도 백 자 가량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지가 어려워서요.
문제 2번에서, 맨 마지막의 '결론적으로...' 문단이 있어서 글자수가 차긴 했는데 저렇게 내용을 요약정리하듯이 서술해도 괜찮은가요? 동어반복적이라 감점 요소가 될까 봐 걱정돼서요.

Q2. 문제 2번의 전체적 구성이 저렇게 주관적이어도 되나요? ㅠㅠ;

저는 연세대학교 문제 접근할 때 무조건 비교기준부터 잡고 시작해서, 2번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비교기준을 잡고->비교기준에 따르는 순서대로 서술을 했는데 모범답안들 보면 모두 가나다라 순행적 순서로 서술했더라고요. 혼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건가 싶어요...;

그리고 비교기준을 저런 식으로 개념어를 통해 일반화 시켜도 괜찮은가요? 오버하는 걸까요? ㅋㅋㅋ ㅠㅠ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첨삭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세대 시험 마지막 점검 겸 해서요 며칠 좀 자주 보내더라도 너무 귀찮아하지 말아 주세요... ㅎㅎㅎㅎ 잘 부탁드려요!